

대피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비상시에 **개인·지역(이웃)·국가(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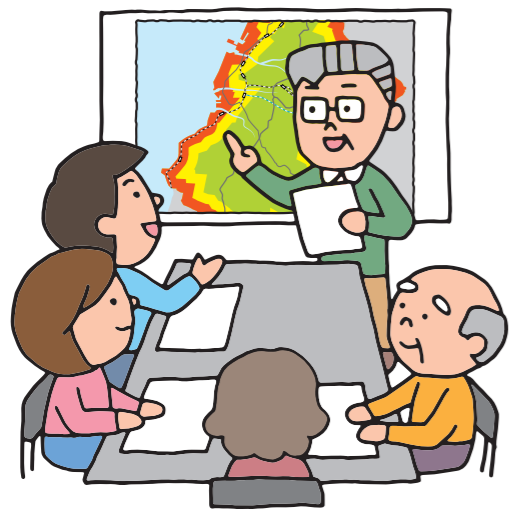
- 자주 방재 조직의 적극적인 활동
방재 훈련(대피 훈련) 등의 계획, 실시와 방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계획의 작성
- 대피 체제의 확립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지원 계획 작성, 대피로·대피소 등의 주지 철저
- 지역 주민의 안부 확인과 대피 지원
안부 확인 요령 및 대피 지원 요령의 플로 차트 작성
- 대피소의 운영과 응급 대책
대피소 운영 매뉴얼 작성
- 시 재해대책본부로의 정보 전달 등
방재 훈련(대피 훈련) 등에 맞춘 시와의 정보 전달 훈련 실시(방재 행정 무선을 사용)



각 지역의 자주 방재 조직에 대한 각종 지원

다음을 착실히 준비한다면 지역마다 재해 발생 직후부터 원활한 응급 대책의 실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종합 방재 훈련, 지역 방재 훈련, 해일 대피 훈련, 토사 재해 훈련 등의 실시.
- 방재 강연회, 방재 출장 강좌 등의 계발 활동 실시.



- 커뮤니티 해저드 맵이나 자주 방재 훈련 매뉴얼의 작성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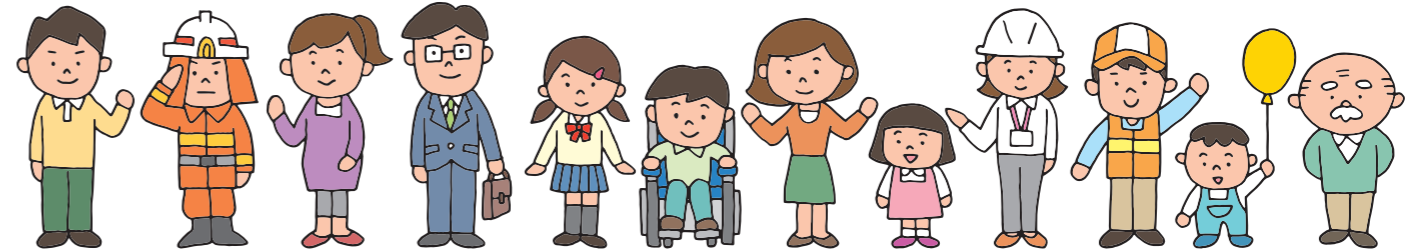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위기관리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지역에서 대피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지키자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분은 혼자 대피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의 여러분이 협력하여 서로 도움시다. 평소에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해 시에는

고령자

- 먼저, 말을 걸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묻고, 지원합니다.
- 보통 손을 잡거나 업거나 들것을 이용하지만, 본인이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 위험한 상황을 상냥한 말과 침착한 태도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대피를 촉구합니다.

눈이 불편한 사람

- 먼저, 말을 걸어 지팡이를 든 사람의 손은 잡지 말고 팔꿈치와 팔뚝, 어깨에 닿게 하고, 반걸음 앞 근처를 걸어서 유도합니다. 다음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꼭 말로 전달합니다.
- 구체적으로 이미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상황을 말로 전달합니다.

귀가 불편한 사람

- 먼저, 보이는 위치에 서서 왔음을 알립니다.
- 수어·필담·몸짓·공서(공중에 씌), 손바닥에 씌·구화(조금 천천히 확실하게 입을 벌리고 말한다)·도형·그림 등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전달합니다.
- 안심할 수 있도록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형태로 전달합니다.

휠체어 이용자

- 계단이나 언덕은 올라갈 때는 앞을 향하고, 내려갈 때는 뒤로 향해 이동하는데, 3~4명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포감을 주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

- 단어 하나 하나를 듣고 메모하고,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는 여러 번 되물어도 좋으니 의사소통을 꾀합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 천천히 말을 걸어 상황을 전달합니다. 본인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 소수자

-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성을 배려한 공간과 지원을.

